

앗!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하게 성에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시대에 발맞춘 성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의 성교육의 현실은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교보건법과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연 15시간씩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생물이나 체육 등 다른 과목으로 성교육을 대체 할 수 있다 보니 '성교육'만을 위한 시간은 사실상 보장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사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보건 교사에게 받는 성교육 시간은 초·중·고 각각 4~8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성범죄, 양성평등, 언어 성폭력 등을 교육할 만한 시간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판 보건 교과서는 개정에만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 보건과목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이를 보완해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청소년 건강행태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5.9%가 성관계를 경험했고, 경험자들의 성관계 시작연령은 평균 13.6세였다.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시기가 빨라졌고 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졌거나 성숙해졌다고 여길 수 없다. 아무리 성숙해 보여도 청소년의 뇌는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다. 성관계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성교육의 핵심은 인격교육

청소년 성교육은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잡다한 성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이들이 피임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교육의 핵심은 인격교육이다. 좋은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양육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성이란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라는 신성한 법규 안에서 결혼을 한다. 사랑으로 낳은 자녀를 부부가 노력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기르는 과정이 성이다. 그래서 성교육은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다른 이성간에 지켜야 할 인격적인 예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성은 장차 자신을 지켜줄 가정의 기초가 된다.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과 결혼을 통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는 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만의 특권과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교육이다. 성교육이라며 개방된 성에 관해 과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미숙한 청소년들의 뇌에 혼란만 일으키게 된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해도 된다'는 식의 교육은 아이들을 좋은 인격체로 성장시킬 수 없다. 금지할 것에 대해 명확하고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적 성교육으로

성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성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성'(sex)은 장 갈뱅이 말한 것처럼, 남녀 간의 즐거움과 유희를 위해 주신 것에 앞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손을 이루라는(창 2:28; 말 2:15)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을 다루면서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한 자녀의 출산을,

놀랍게도 '교회의 번성'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그러므로 성을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과 행복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부합해야 하며,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미디어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은 단순히 문화 전쟁을 넘어 교회를 흔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많은 부모와 교회들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막막해하고 있다.

현 시대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 가치관, 성 역할, 성 윤리, 성 규범은 대체로 실종된 상태다. 대신 인본주의에 기초하여 성을 자신의 쾌락 도구로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시대에 세상의 성교육은 '성의 사용'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다. 진리에 입각한 바른 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장래에 맞이할 결혼과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건강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바른 성교육은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행위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기독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 충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소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자기 성적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적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교육이 아닌, 성적 충동과 욕구를 절제하고 승화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함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성교육 현황▶

독일	영국	미국	일본
① 성윤리보다 과학지식에 초점을 맞춘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 ② 교사지망생은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③ 성교육은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임신이나 질병의 위험에 대한 예방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④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① 성교육은 정부차원에서 '성과 관계 교육 개념'을 1996년 교육법과 학습 및 기술법안에 포함시켰다. '성행위'로 한정되기 쉬운 성교육 개념을 관계로까지 확장하였다. ② 성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7세부터 성지식과 가정폭력 방지 방안을, 11세부터 결혼의 중요성을, 14세 이후 사춘기 때부터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① 45개 주 모든 공립학교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교육을 의무화하여 성교육 한다. 주별 교육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특성상 대부분 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성교육을 시행한다. ②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육아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필수과제이다. 신생아와 똑같은 육아 인형을 일주일간 돌보면서 육아 체험을 한다.	① 독일식 성교육 모델의 영향으로 성을 철저히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 ② 보건 교육 수업은 연간 70시간 이상으로 월경, 사정, 신체발육, 임신과 출산, 에이즈 예방 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③ 개방적인 성문화로 성산업이 발전했음에도 교육행정담당자들은 전통적 순결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와 학생에 의해 현실적인 성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쟁의 양날의 칼을 보며 한반도의 미래를 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군사작전(?)이 이렇게 오래 끌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세력과 서방 자유주의 세력의 충돌로 단순한 군사작전(?)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젊은이가 죽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삶의 타격을 맞아왔습니다. 전쟁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악마의 갑부', 즉 공멸의 현상임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2차대전 후의 평화기를 구가하고 무장해제 했던 유럽은 아직도 그 정신적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은 발화하자 그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피의 악순환 고리로 2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당사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 네트워크에도 심각한 균열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1년 만에 한국 대러 교역 23%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교역 증가율은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은 2배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 증가율(11.4%)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1.0%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됩니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8.8%로 전쟁 이전 전망치였던 4.2% 대비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인도(237.0%), 그리스(107.8%), 튀르키예(102.7%) 등은 같은 러시아와 교역 상대를 유지하던 편 가름의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들 국가는 무역증가 폭이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 전쟁에 따라 이익을 거둔 나라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쟁은 파워시프트, 경제시프트를 몰고 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전쟁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그대로 두되 전투를 멈춰 회생을 즐기는 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빼앗게 되는, 러시아가 바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2023년 가을 이후 전선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대략 20%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땅을 포기하고 철군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주변국은 더는 이 전쟁을 보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국, 특히 우크라이나도 주변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무기, 인력, 자금, 국민의 지지 등 전쟁 피로감이 점점증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이쯤에서 점령한 땅에 선 곳과 휴전하고 싶어 합니다.

한때 쿠데타, 암살, 내란 등 양국 국내의 정치적 격변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바그너그룹의 수장 암살 이후 특별한 정정불안은 보이지 않지만 피로감의 누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방이 강력히 러시아의 경제를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지난해 10월 예측을 보면, 러시아는 2022년에만 성장률이 2.1% 하락했을 뿐, 2023년에는 2.2% 상승하여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환율 방어도 생각 이상으로 석유값이 올라 잘 방어하고 있는 것도 경제제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5월부터 1년간은 루블의 가치는 전쟁 전보다 더 높은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서방의 현실은 돈이 큰 부담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년간 군사적 지원 463억 달러, 비군사적 지원 291억 달러 등 총 754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의 키엘 연구소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원 규모를 총 791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 규모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 1605억 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 이 경제적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상원은 지난해 12월 6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액 600억 달러를 포함한 지출액 패키지를 부결시켰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난해 12월 500억 유로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안이 헝가리 반대로 의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미 서방 7개국을 휴전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서방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주요 7개국(G7)이 주축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이란 이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엔 미국·독일·일본 등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서 가입은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가입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건·복구 과정 상황과 동향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10년간(2023~33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복구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국가 복구 계획(National

Recovery Plan. NRP)에서 제시한 비용은 최소 7500억~9천억(1천 200조 원) 달러에 달합니다. 누구도 다 상상 이상의 엄청난 재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중동의 사우디 시장, 심지어 서방과의 대적인 러시아도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물권의 이동으로 세력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시점에서 몇 가지 향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의 모두 피로감에 공감하기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구 사업에 전 세계는 주목할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마살플랜으로 유럽을 복구했듯이 미국을 비롯해 서방 7개국과 한국이 가입한 복구 프로그램에 주도적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중동 붐을 능가할 엄청난 건설, 전자, 엔지니어링, 스마트 등 우리의 강점을 절실히 러시아마저도 목말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쟁의 피해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당사국으로 전쟁기업들이 철저히 미군정에 의해 무너졌다가 한국전쟁으로 모두 살아났습니다. 다시 강력한 경제 대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 나는 일들뿐이었습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국의 영적 태도와 자세를 기준 삼아 세계의 무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 70여 년의 경제성장의 과실과 노하우를 나누는 상생의 정신 이런 것들을 한국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 확장의 섭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그 밑바탕과 중추로 있었음을 세계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각 '성소가 된 성도들이 살아서 하늘의 비전을 계속 받아들이는 생수의 통로로 기능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 부으신 은혜가 크고, 이런 한국의 존재는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은 돈 되는 곳에 본능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마땅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천적 소스인 각 성도의 영적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편의주의를 버리고 모두 모여 다시 섬김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입박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엄청난 자산을 주실 것을 기억하고 뜨거운 기도로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 땅에 조국과 열방을 위한 중보자가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v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문 앞에 온 통일 쓰나미를 대비하라

통일연구원의 2022년 통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보다는 '평화적 분단'을 원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모든 국민이 소원하던 말이 시대가 흐르면서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숙명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안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다.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통일의 의미는 더 말할 것 없이 크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는 일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있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초당적 합의로 가능했다. 이후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다. 통일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갑자기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처를 덧내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국민적 합의다.

북한은 김일성이 1973년 '고려연방제' 방식의 평화 통일을 제창한 이래 50년간 이를 고수해 왔다. 이는 남북이 각기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연방제 통일이 이룩되면 남한 내 친북 세력의 협조로 북한이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압도적 주도권을 장악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말하자면 북한 방식의 평화적 대남 흡수 통일 구상이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전통적인 고려연방제에서, 1991년 '느슨한 연방제'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꾸준히 변화했다. 다른 분단국의 사례를 보면, 국력이 약한 쪽이 대체로 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국력이 강한 쪽이 통합 수준이 높은 연방제를 주장한다. 약자는 흡수의 위협 때문에 문턱을 높이고, 강자는 흡수할 자신감으로 통합의 문턱을 낮추려 한다.

북한은 과거의 대남 군사적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1990년대 들어 무력통일 역량이 급속히 쇠퇴하자 비군사적 방법으로 남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한 고려연방제와 평화체제 구상에 더욱 집착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6·15 선언의 적극 구현'이 합의됐으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연방제 통일문제가 자취를 감췄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대외적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토대로 한 평화적·접진적·단계적 통일 원칙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며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나"고 말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셈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흡수통일론이란 두 국가가 통일을 할 때 한 국가가 상대국가의 체제에 완전히 맞

■ 남북한 통일 방안 변천 과정

시기	남한	북한
1948~1960년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정부)	남북자유총선거론 (유엔 감시하)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	선건설·후통일론(1966)
1970년대	제4공화국 (박정희정부)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3년 6월 23일), 선평화·후통일론(1974)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
1990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0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자료: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춰 통일을 이루는 방식을 말한다.

흡수통일은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흡수통일론의 대두는 북한이 대화와 교류보다는 체제 경쟁, 내부 결속, 핵 능력 고도화 등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경우 강압적이고 평화와 배치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흡수통일의 근거로 독일 통일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 통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 협의통일'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십년 동안 동서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왔다. 이

후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로 서독 체제로 편입된 것이며, 서독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장기적인 교류와 신뢰회복 과정을 통해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이룬 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토대로 남북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해 벽두 대남담화문을 통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칭하면서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이라 칭하며 한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거나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역량을 총동원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숨겨진 두려움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이룬 K-축산, 한국 젓소 101마리 '첫 결실'

2022년 12월, 네팔로 날아간 한국 젓소 '101마리'가 드디어 첫 결실을 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제·민간 국제개발단체 해외코리아는 젓소 101마리 중 경기 남양주 서울우유 순흥목장에서 기증한 젓소 '토실이'가 지난해 5월 4일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 뒤 280여 일만인 이달 초 건강한 암송아지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 태어난 암송아지는 이를 지원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를 담아 네팔 수해 농가에서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국의 유전자원인 젓소 생우가 해외로 보내진 것도 처음이지만 한국형 사료와 동물약품, 그리고 국내 수의·번식전문가의 인공수정 기술 등 선진 K-낙농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젓소가 해외에

서 사육·출산까지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24년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신들리지 구 카말라미시에서 '한-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시범낙농마을 건립 선포식'을 가졌다. '한-네팔 시범낙농마을'은 한국 순종 젓소 생우와 유전자원, K-낙농 기술 등이 접목돼 해외에 건립된 한국 최초의 낙농 마을이다.

기존 네팔 젓소의 연간 마리 당 산유량은 우리나라 젓소 산유량의 1/3수준이었으나, 한국에서 보낸 젓소의 산유량은 약 2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 탄생한 암송아지는 나눔의 연쇄효과를 일으키는 해외의 패싱 온 더 기프트 나눔 철학에 따라 인근의 다른 빈곤 농가에 선물로 전달됐다.

총체적 위기의 북한, 어떻게 될까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었고, 북한의 김정은은 자위적 수단으로 핵 능력은 강화하지만, 자신들에게 이득보다는 손해를 가져오는 통일을 포기하고 내부 응집력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엘리트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설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발단은 1월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됐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 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였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칼린 연구원과 해커 교수의 발언이었기에 파장은 컸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열흘 동안 네 차례나 시험 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지만, 2010년과 같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NLL, 즉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선대 수령의 업적으로 기리는 조국 통일 3대 헌장기념탑까지 철거한 김정은은 한반도를 앞으로 최대한 분쟁지역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질수록 문제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하는 유리한 협상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예정되었다. 향후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위협 속에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시기이다. 종전처럼 각종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핵·미사일 성능 개발과 관련된 도발만이 아니라 핵사용 위협과 함께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전쟁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에서 조성되는 긴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민감하며 치명적인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5위

전쟁 발발 후 7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군사력 평가 업체 글로벌과 이어파워(GFP)의 2024년 세계 군사력 평가 순위

서 한국은 5위에 올랐다. 반면 북한은 36위를 기록했다.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약 53조 원으로 11위, 북한은 4조6000억 원으로 58위다. 하지만 이 평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앞서지만, 핵무기를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재래식 무기의 우세를 무력화한다.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한군의 핵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 안보의 심각한 도전이다.

또한 북한은 최근 해군 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행보를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전술핵 탑재 수중 핵어뢰 ‘해일-5-23’을 시험했으며, 새 잠수함발사전략 순항미사일(SLBM)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군력은 강하지는 않다. 해군 전력만 보면 지난해 발표된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14위를 차지했다.

우리 해군은 전투함 90여척, 상륙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지원함 20여척, 잠수함 10여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투함 420여척, 지원함 40여척, 잠수함 70여척, 상륙함 250여척 등을 갖고 있다. 단순히 함정 수로 보면 북한이 앞서지만,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 해군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개별 함정의 능력 때문이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등 체급이 높은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해군 함정은 대부분 소형함으로 전면전 시 운용 시간과 순항 거리가 짧다.

북한의 재외공관 폐쇄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간다와 앙골라, 스페인 주재 대사관, 홍콩 주재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폐쇄했다. 북한의 재외공관 폐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 인력의 북한 귀국이 어렵게 되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근근이 유지해오다 최근 국경을 전격 개방하며 대사관을 정리하는 것이다.

북한 재외공관 축소의 첫 번째 요인은 재정적인 문제이다. 북한 재외공관들은 본국으로부터 재외공관 운영비 지원이 끊기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왔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지속으로 재외공관의 운영비 자체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결국 재외공관을 폐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부담을 느낀 국가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북한이 외교 관계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비난을 지속해왔고, 이러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부담을 느껴 자의든 타의든 재외공관의 축소를 이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북한 재외공관 재편은 신냉전적 구조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중·러·북 밀착 관계를 심화시키는 신냉전적 편승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대외 공관 구조조정으로도 보인다.

엘리트·2030세대 탈북 증가

북한이 재외공관을 축소·폐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공관이 폐쇄되면 외교관 등 주재원과 가족들이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북이 일어났다. 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자들도 귀국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발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의 입국 인원은 총 196명(여 164명, 남 32명)으로 그 가운데, 2030 세대가 99명으로 과반이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면서 북한 엘리트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탈북했다는 비율이 북한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북한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식량부족을 이유로 탈북한 비율이 22.8%로 북한체제가 싫어서 20.5%보다 높았지만, 21년에는 식량부족이 21.6%, 북한체제가 싫어서가 22.8%, 22년에는 식량부족 21.4% 북한체제가 싫어서가 22.6%로 근소하게 역전됐다. 1997년 북한 최고위급 인사였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망명했고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공사(현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2019년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역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자녀 문제 등으로 탈북을 결정했다. 대사급 외교관조차도 피할 수 없는 외화벌이 압박과 사상통제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점점 가속화할 것이다.

순위	국가명	군사력 평가지수	전년 대비
1	미국	0.0699	-
2	러시아	0.0702	-
3	중국	0.0706	-
4	인도	0.1023	-
5	한국	0.1416	▲ 1
6	영국	0.1443	▼ 1
7	일본	0.1601	▲ 1
8	튀르키예	0.1697	▲ 3
9	파키스탄	0.1711	▼ 2
10	이탈리아	0.1863	-
...			
36	북한	0.5313	▼ 2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걸 의미
*자료: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내 손의 통역사와 함께 세계로!

각국의 여행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로 떠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부분이 언어의 장벽이다.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이런 장벽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어 상당히 개선되었다. 어떤 앱이 있는지 살펴본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번역앱

1 네이버 파파고

파파고는 13개의 언어가 지원되는 번역 어플이다. 외국 여행 시에 가장 좋은 기능은 '대화' 기능이다.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마이크를 켜고 셀폰을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말이 바로 문자화되면서 한국어로 몇 초 만에 통역이 된다. 파파고앱의 왼쪽 상단을 클릭하면 '글로벌 회화'가 있다. 글로벌 회화를 클릭하면 기본표현, 공항·비행기, 숙박, 식당, 쇼핑, 교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전화, 긴급상황, 병원·약국 등으로 구분돼 기본적인 다양한 영어회화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음성'을 클릭하고 한국어로 말을 하면 영어로 바로 통역돼 화면에 글씨가 뜬다. 만약 높임말을 원하면 높임말 표시를 클릭하면 번역시 높임말이 사용된다. 사진을 찍으면 텍스트로 바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다.



2 구글번역

108개의 언어를 지원해주며 사진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설명 사진의 이름이나 정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손쉽게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59개의 언어를 번역해주거나 96개의 언어가 지원되는 손글씨 기능도 있어서 여행지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소모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손글씨로 생전 처음 보는 단어나 문장을 번역할 수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여행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대화'이다. '대화'를 클릭하고 마이크를 켜고 한 명은 한국어로, 한 명은 영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대화하면서 바로 통역이 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3 마이크로 소프트 번역앱

70개 이상의 언어가 지원되며 구글 번역과 마찬가지로 상위 랭킹을 다두고 있는 어플 중 하나이다. 여러 언어로 최대 100명과 대화가 가능한 번역 어플로 다른 앱과 공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애플 워치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애플 워치에 바로 말을 해도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플에 비해 좀 더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언어를 한 번에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있어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데 유용하다. 중요한 회의나 식사자리에서 통역사가 없더라도 이 번역기 어플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첫 페이지 밑의 '찍'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여행시 교통, 숙소, 식사 등의 가장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4 iTrans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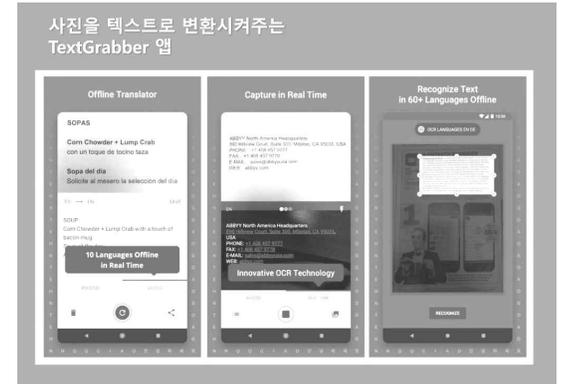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앱 스토어상 최고의 평가를 받은 어플 중 하나로 카메라 기능으로 메뉴나 표지판 등을 즉시 번역해주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쓰기에 좋은 어플이다. 또한 남녀의 목소리를 다르게 해당 외국어의 발음을 듣고 비교할 수 있으며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아이폰에만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물체를 인식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맞는 지역 이름을 제안한다. 또한 애플 시계와 결합도 가능하고, 음성에서 음성으로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 TextGrabber

전체 100개의 언어를 번역해주며 그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역 지원되는 언어가 60개 이상이고, 실시간 인식 모드로 인해 사진을 직접 찍지 않더라도 대상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긴급

한 상황이거나 즉시 번역해야 하는 경우 이 어플이 가장 유용하다.



6 Waygo

중국 및 일본 등을 여행한다면 꼭 필요한 번역기 어플이다. 카메라를 통한 어떤 이미지든 텍스트가 나온 부분을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세로든 가로든 상관없이 번역할 수 있다. 특히 Waygo만의 유니크한 기능으로 음식에 관련해서 번역을 요청하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관련 이미지도 같이 보여줌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준다. 아시아 지역의 언어에 맞게 번역 알고리즘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시아 지역 여행시 추천이 되는 앱이다.



7 TripLingo

TripLingo 번역기 어플은 단순히 번역기능을 넘어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으로 문화, 경제, 정치, 역사 등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한다. 인스턴트 음성 및 텍스트 번역은 총 42 언어로 가능하다. 구글 번역기가 지닌 기능과 같이 이미지 번역 및 저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이 기능을 통해서 번역 후 PDF로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 갈 때 편리하다.





커피, 한국에 와서 '분위기'를 입다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 한국 1384개, 일본 529개, 영국 386개, 미국 185개, 중국 71개로 한국의 커피 전문점 수는 압도적이다. 서울은 물론 지방 어디를 가도,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길마다 커피는 그 향미를 풍긴다. 커피는 한국 시장에서 안전성이고 성장성이 뚜렷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

커피는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는 작년 한국인 1명당 400잔이 넘는 커피를 마셨을거라 추정했다. 전 세계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152.7잔)의 2배 이상으로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로 꼽힌다. 집과 오피스에서 즐기는 커피도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기존 인스턴트 커피 외에 캡슐 커피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국내 캡슐 커피 시장은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음료 선호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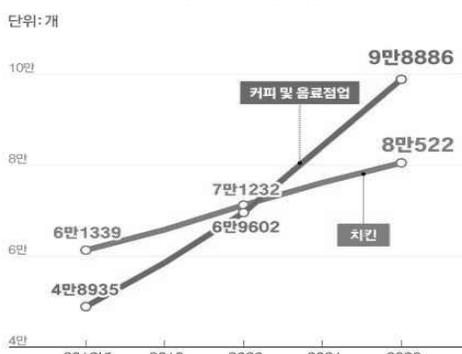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6355명 대상 설문/단위(%)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얼마나 많을까?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커피음료점은 93,414개에 달한다. 공정위에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9638개 중 13.6%가 카페 브랜드일 정도다. 그런 만큼 카페 유형도 다양하다.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메가커피 등 소형·저가 프랜차이즈, 그리고 비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 전문점도 있다. 스타벅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2021~2022년 연매출 2조 원을 넘기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기준 국내 점포 수는 1870개에 달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9만9000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점포 수로는 30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한 이디야커피가 선두에 있다. 메가커피 등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치킨집보다 더 많아진 커피음료점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커피 전문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커피 맛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장소로 커피 전문점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커피 전문점 열풍의 시작은 스타벅스였다. 1999년 이대점을 필두로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즐곳 커피 전문점 시장을 주도했다.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은 당시 기준에 비해 비싼 편이었고,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여지들을 일컬어 '된장녀'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고,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커피 가격은 스타벅스 커피 가격과 비슷해져 누구도 커피 전문점에 가는 그녀를 '된장녀'라고 비하하지 않는다.

오늘날 커피 전문점의 증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대한 갈증, 즉 '사회적 관계' 욕구로 해석되곤 한다. 커피 전문점을 혼자 방문하는 경우는 14%에 그치지만, 친구·동료·연인 등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경우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커피 시장에 관심이 많은 미국 콜린스대학교의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커피 문화는 독특하다. 한국인에게 가정은 가족이 머무르는 곳이고,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커피 전문점이 집과 직장의 스트레스에서 해방 시켜주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한다"라고 말했다.

세계의 커피 문화와 한국의 커피 문화의 특징

아라비아반도의 경우는 남자가 직접 커피를 추출해서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실제로 터키에선 아침마다 남자가 여자 집을 방문했을 때 커피를 대접하지 않으면 결혼을 거절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때 나온 커피가 '술탄커피'이다. 씨를 발라내지 않은 커피 열매를 그대로 밀려 빵아서 만든 커피로 걸쭉하게 마시는 게 특징이다.

유럽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커피를 즐긴다고 할 정도이다. 산업화로 빨리 추출해 마시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발전하였다. 코스 요리의 거북함을 줄이려고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겨 마시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하루 세 번씩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다. 아침엔 카페라떼, 점심엔 에스프레소 도피오, 저녁엔 카푸치노를 마실 만큼 커피를 즐긴다. 미국인들은 유럽에 비해 묽은 커피를 마시며, 그 많은 인구의 65%가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식생활이 육류 중심으로 느끼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커피를 자주, 많이 마시는 식습관이다.

일본은 차 문화로 유명하다. 차 문화만큼이나 오랜

커피문화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인스턴트커피보다 원두커피의 소비량이 늘어난 것과 커피 볶는 기계가 3,000여 개에 이르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일본인들은 "나만의 것", "최고의 것"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블루마운틴을 즐긴다. 전 세계 블루마운틴 생산량의 90%를 소비하는 나라이며, 간편하게 즐기는 캔 커피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한데,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민족적 스타일이 커피 문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커피의 맛이나 향보다는 분위기나 인테리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커피숍은 일종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며, 북카페, 작업공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이용된다.

또한 커피의 맛과 향보다는 커피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두며, 커피머신과 라떼 아트 같은 것들이 특히 인기가 있다. 한국에는 다양한 카페가 매우 많다. 미술카페, 애견카페, 사주카페 등 다양한 컨셉과 테코레이션으로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다양한 커피 선택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부터 독창적인 현지 퓨전 커피까지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카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국으로 몰려드는 해외 커피 브랜드들

캐나다 대표 커피 브랜드 팀홀튼은 국내 1호점을 지난해 12월에 강남구 신논현역점에 열었다. 팀홀튼은 1964년 캐나다에서 유명 하키선수 팀 홀튼이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를 연 데서 출발했다. 팀홀튼이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카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팀홀튼 측은 "한국은 커피 문화가 강하고 새로운 음식 경험을 시도하는 고객들이 많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서부지역 3대 커피 '피츠커피'도 지난해 5월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며 국내 첫 매장을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꼽히는 '인텔리젠시아'도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인텔리젠시아 한국 매장이 생기면 미국 외에 여는 글로벌 첫 매장이 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커피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바샤 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을 확보했다. '바샤 커피'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원한 브랜드로, 현재 싱가포르·프랑스·홍콩·두바이 등 9개국에서 총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샤 커피'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공수한 100%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만든다.

봄맞이 꽃구경 어디가 좋을까

‘봄의 전령’ 매화가 남부지방에서 개화하였다.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며 매화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이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다. 초봄을 맞이하여 꽃구경 가기 좋은 장소는 어디이며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알아보자.



광양 매화축제

- 일시: 2024년 3월 8~17일
-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역

전라남도 광양에서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매화축제로서, 섬진강변과 청매실농원에 자리한 수천 그루의 매화나무가 만개하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서울의 매화꽃 명소 ① 창덕궁

창덕궁에서 매화가 유명한 곳은 낙선재다. 낙선재 앞뜰에는 백매화와 청매화를 모두 볼 수 있다. 둘 다 모두 꽃잎은 흰색이다. 백매화의 꽃받침은 붉은색이며 청매화의 꽃받침은 초록색이다. 낙선재 바로 위쪽인 성정각 자시문 앞에서는 붉은 꽃잎을 자랑하는 홍매화를 볼 수 있다.

② 청계천 하동 매화거리

지하철 2호선 용답역과 신답역 사이에 있는 청계천 하동 매화 거리는 지난 2006년 하동군이 기증한 매실나무를 심어 매화 군락지를 만들었다. 제2마장교 아래 둔치 길로 내려가면 매화길이 시작된다.

③ 불광동 북한산생태공원

북한산생태공원은 불광동에서 구기터널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공원이다. 봄이면 매화뿐 아니라 벚꽃도 볼 수 있어 숨은 봄나들이 명소 중 하나다. 북한산생태공원에는 홍매화가 많다.



산수유는 잎이 나오기 전 이른 봄날 다른 어떤 나무보다 먼저 샛노란 꽃을 잔뜩 피운다. 꽃은 3~4월에 피는데, 꽃대 끝에 20~30개의 많은 꽃이 우산살처럼 피며, 지름 4~5mm, 노란 색이다.

구례 산수유축제

- 일시: 3월 9일~17일
-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온천관광지 일대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이다. ‘영원불변의 사랑’이라는 산수유 꽃말을 주제로, 다른 꽃보다 빨리 봄의 시작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경기도 이천 산수유마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의 산수유마을은 이천에서 가장 높은 원적산 아래 자리하고 있다. 영원사를 향해 가는 길은 송말리에서부터 도립리를 거쳐 경사리에 이르기까지 산수유나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산수유꽃은 대개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10일 전후로 절정의 모습을 보인다. 이곳에는 산수유 들레길 1코스(6.0km)와 산수유 들레길 2코스(8.6km)가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돌담길인 1.2km의 연인의 길이 있다. 육괴정을 출발하여 축제장을 지나 바람골까지 가는 길로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된다.



인천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

- 일시: 2024년 4월/ ■장소: 고려산

인천 강화도의 고려산에서 열리는 진달래축제는 자연경관 속에서 만개하는 진달래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봄의 축제이다.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고려산(436m)의 산등성이를 따라 진달래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진달래 군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선 정상 부근까지 약 1~2시간의 코스로 등산해야 한다.



유채꽃은 대개 1월에 개화하여 2, 3월 만개하며 4월까지도 유채꽃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명소마다 일찍 개화하는 종을 심어 12월~5월까지 무려 반년 동안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목련축제 개화시기는 3월부터 4월이다.

목련을 주제로 하는 봄꽃축제는 국내에서 천리포수목원이 유일하다. 천리포수목원은 50여 년간 나무가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가꾸고 수집한 수목원으로 세계 최다 목련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다.



벚꽃 축제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제주에서 약 3월 20일~24일 사이에 시작해 부산은 3월 24일~26일, 서울은 3월 28일~4월 1일 사이쯤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서울 석촌호수 ② 서울 여의도 ③ 강원도 경포대(경포호) ④ 충북 제천 청풍호 ⑤ 대구 이월드 피크닉 블라썸 ⑥ 창원 진해군항제

제주도 유채꽃 명소 ① 성산일출봉 유채꽃밭

성산 유채밭으로도 불리는 성산일출봉 유채꽃밭은 제주스러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유채꽃 명소이다.

② **영등물계곡** 중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영등물계곡은 계곡을 따라 유채꽃이 피어나는 곳이다. 평지인 다른 꽃밭과는 달리 땅의 높낮이가 달라 입체적인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산방산 유채꽃밭** 산방산의 유채꽃밭의 유채꽃은 다른 곳보다 키가 크고 촘촘해 풍성함을 자랑한다.

④ **녹산로 유채꽃 도로** 가시리 마을의 녹산로 유채꽃 도로는 창문을 열고 드라이브하기 좋은 도로로, 제주도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스팟이다. 도로 양쪽으로 유채꽃과 벚꽃나무가 줄지어 장관을 이룬다.

서울 유채꽃 명소 반포 서래섬

반포 한강공원의 서래섬의 유채꽃은 5월이 가장 좋다. 서래섬은 1986년 조성된 인공섬으로 봄에는 유채꽃 명소로 유명하다.



트랜스젠더들은 후회의 일생을 맞이한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이다. 약물과 수술은 정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성적 이형성이다.

성적 이형성(sexual dimorphism)은 같은 종의 암수가 생식에 관여하는 기관 외에도 매우 다른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IQ보다 중요하고, 민족성보다 중요하며, 사는 곳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들의 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2살 정도가 되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그들의 세 번째 생일 이전에 대부분 아이는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라고 부른다. 4살이 되면 대다수 아이는 자신들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해 안정적으로 인식한다. 적어도 최근 “성전환” 열풍이 미국을 강타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6살이 되면 대부분 아이는 놀이 시간을 자신의 성별을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며, 종종 자신의 성과 관련된 스포츠나 다른 활동에도 끌린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옷, 헤어스타일, 스포츠에 관한 관심, 선호하는 이름이나 별명으로 자신들의 성별을 표현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성별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에는 지배, 공격성, 의존성, 온화함, 신체적 제스처, 그리고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고 확인된 다른 비언어적 행동들을 포함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까운 친구들과의 성별과 유명 배우나 스포츠 스타와 같이 그들이 모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다.

성별 불쾌감 : 오늘날 알려진 장애

드물게 소수의 사람은 자신의 성별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우리는 성별 불쾌감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성별 불쾌감을 가진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출생이 지정한 성별에 스스로 적응한다. 이러한 적응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대부분 역사에서 적절한 대응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것에서 “성전환(트랜스젠더)” 유행을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지지하고, 미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인터넷에는 자신들의 삶에 매우 불만족스러웠던 어린 소녀들을 미화하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웹사이트들은 그 후에 성전환 하여 보다 더 행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부는 행복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사용하거나, ‘성확정 수술’과 같은 덜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소위 ‘성확정 케어(성정체성 지지 요법)’라고 불리고 있다. 성확정 케어 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수술비만 수천만 원), 정치적으로 좌파의 지지를 받으며, “느낌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보건부 차관보가 된 트랜스젠더 출신 레이첼 러바인 전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이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 자랐고, 히브리 학교에 다녔다. 의과대학에서 리처드는 마사 피스리라는 이름의 의대생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의학 학위를 땀고, 1988년에 결혼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데이나라는 이름의 두 자녀를 두었다. 2011년 그는 마사 피스리와 결혼한 상태에서, 리처드에서 레이첼로 성전환을 했다. 레이첼 러바인과 마사 피스리는 2013년에 이혼했다. 그는 USA Today의 2022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이 선정은 사회에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여성들을 선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많은 남성이 성전환 후 선정되어왔다. 레이첼이 보건복지부 보건차관보로 임명된 직후, 레이첼은 NBC News에서 미국의 건강 격차에 관해서 말하며, 가장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고려할 때, 성전환의 해악을 보여주는 많은 문서화된 연구 결과를 고려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트랜스젠더 비율

모집단의 트랜스젠더 비율은 연구 설계와 완료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한 연구는(32개 연구의 메타 분석에 의해) 인구 10만 명당 9.2명(0.0092%)이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연구는 캘리포니아 성인의 트랜스젠더 비율이 10만 명당 0.1% 또는 100명이라고 추가로 추정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미국인 중 약 5%가 현재 출생 시 확인됐던 성별과 다른 성별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0.33%를 구성하고 있다. 성전환 및 비전환 비율의 이러한 커다란 차이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는 (1)연구 모집단의 대부분이 매우 작은 표본 크기에서 추출된다는 사실, (2)다른 국가에서 사회적 차이(아랍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비율은 본질적으로 제로이다), (3)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 등이 포함된다.

기독교적 측면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마가복음 10:6절은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암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화론은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서 진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성별 사이에 엄격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진화론의 유동적인 성별(sexuality) 개념은 인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남녀 사이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매울 수 있다고 믿도록 한다.

연구들은 성경적 견해를 지지한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남녀 성별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성전환 시도는 자주 실패하며, 성전환을 다시 되돌리려는 욕구를 발생시킨다. 이 결론을 확인해주는 새로운 한 연구는 성전환을 중단하거나 반복한(탈성전환을 한) 개인들의 치료 경험과 전망을 탐구했다. 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20~53세 사이(20~29세가 71%)였다.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았다 :

2021년 10월~2022년 1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하며 성전환을 중단, 변경, 되돌린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반구조화된 일대일 가상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6개 도시 중심지의 임상가와 함께 연구를 광고 배포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28명의 참가자 샘플을 모집했다. 인터뷰는 50~90분 사이였으며, 오디오로 녹음되었으며, 축약본이 작성되었다.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

모든 참가자는 LGBTQ2S+(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Two-Spirited) 스펙트럼을 따라 식별되었다. 참가자 28명 중 27명(60%는 24세 이하)이 의료/수술 개입을 받았다. 대다수(57%)가 3개 이상의 과거 성 정체성을 보고했으며, 60%는 성전환을 시작할 당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정체성에서 나중에 논바이너리 정체성으로 변환되었다. 그들이 “대다수(57%)가 3개 이상의 과거 성 정체성으로 보고되었으며, 60%가 전환을 시작할 당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정체성에서 나중에 논바이너리 정체성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매우 불만족스러웠고, 하나의 자아 정체성에서 다른 자아 정체성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이어트를 시도하였으나, 시도한 모든 다이어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삶의 만족을 찾기 위해 정신분석을 포함한 치료법을 받았으나, 만족감을 찾지 못하여,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열방의 다이제스트

중, 2024년 '과부의 해' 결혼하지 마세요..미신 퍼져

중국이 '2024년은 과부의 해'라는 미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부년'은 입춘이 설날보다 일찍 오는 해로 중국에서는 이를 '무춘(無春), 봄이 없는 해라고 부른다. 무춘년은 '과부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풍요와 탄생을 의미하는 봄이 없으므로 이 해에 결혼하면 남편을 일찍 여의거나 자녀 출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인구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신, 과도한 자참금 등 결혼에 영향을 주는 풍습 자체를 권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혼인율은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 2013년 혼인 건수는 1347만 건인 반면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출산율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중국 내 신생아 수는 1600만 명 이상이었으나 2023년 902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교회 나라' 그리스,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영국 로이터 통신, BBC방송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300명 가운데 176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이에 그리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정교회 국가가 됐다. 앞으로 그리스 동성 커플은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법안 투표에 앞서 "개혁은 많은 사람의 삶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면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인구의 80~90%가 보수적인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 신자다. 이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앞서 그리스 정교회는 2015년 12월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 결합' 법안이 통과될 때도 가족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해 온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동성 부모 단체인 레인보우 패밀리 대표 스탈라 벨리아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기쁨의 날"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캐나다, 트랜스젠더 등판에 女선수 벤치로

최근 캐나다에서 여자 대학배구 경기에서 무려 다섯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출전해 여자 선수들이 줄줄이 후보 선수로 밀려났다. 온타리오주의 공립 대학교 세네카 컬리지(세네카스팅)와 센테니얼 컬리지(센테니얼) 팀이 맞붙는 경기에서 세네카스팅 팀에서 3명이, 센테니얼 팀에서는 2명이 남자로 보였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교체차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뛰며, 압도적인 파워로 경기 전반을 이끌어 나갔다. 반면 일부 여성 선수들은 활약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다. 세네카스팅 소속 트랜스젠더 선수 중 한 명인 프란츠 라가다스는 2022~23시즌 남자배구팀에 소속됐던 선수다. 1년도 되지 않아 '성전환'했다며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온타리오 대학 체육 협회에 소속된 트랜스젠더 선수는 6명으로 이 중 5명이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 말 그대로 '여자'를 자처하는 '남자'이다.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정확한 경기 출전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北 여성들, 돈 벌더니 목소리 커졌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민은 여성의 시장활동과 가정 내 위상 확대 상관관계에 대해 45.9%가 '위상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편보다 위상이 높아졌다'와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다'는 응답자는 각각 17.2%와 12.8%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은 관련 세대 변화를 두고 남편을 하찮거나 쓸모없는 존재인 '멍멍개'나 낮에 활동하지 않는 '낮

전등' 등으로 비하하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남녀평등 인식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74.9%가 여전히 남녀 사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전에는 남녀 불평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9.3%였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70.6%로 하락했다. 시장화가 본격화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발언권 등이 세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매운맛 'K-소스' 전 세계 휩쓸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한식을 직접 요리해 먹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불닭소스 등 'K-소스'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금껏 가장 많은 139개국으로 수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억84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2013년 1억8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무역수지는 6710만 달러 흑자로 2021년 675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컸다. 특히 불닭·떡볶이·불고

기소스 등 양념소스류 수출이 역대 최대인 2억 4100만 달러(소스류 수출액의 62.8%)를 기록,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식 매운맛이 인기를 끌며 장류 수출도 늘었는데 그 가운데 고추장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수출액 비중은 미국 21.8%(8400만 달러), 중국 13.2%(5100만 달러), 일본 9.0%(3500만 달러) 순이었다. 양념소스류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등 6개국에 새롭게 진출했다.

국민 앱 카톡, 유튜브에 1위 내줘

지난해 12월 국내 사용량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톡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바뀌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 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 4565만 명으로 전체 1위로 올라섰다. MAU는 한 달에 1번 이상 서비스를 쓴 이용자 수를 뜻한다. 2020년 5월 스마트폰 양대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통합한 모바

일인덱스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매달 MAU 1위를 차지해온 카톡은 지난해 12월 4554만 명에 그쳐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갔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1위로 등극한 유튜브는 탄탄한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간결한 편집 방식과 함께 최근에는 쇼츠가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를 비롯한 다양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주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업무' 3할은 사람이 없어도 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들이 내다본 2024년 이후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생성형 AI가 콘텐츠 및 웹사이트 최적화, 고객 데이터 분석 등 기존 마케팅의 일상적인 업무 중 30%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I로 상당 부분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인 마케팅 업무로는 검색엔진 최적화, 시장 세분화 및 분석, 리드

스코어링(잠재 고객 접수화), 초개인화 마케팅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마케팅 업무 전반에 걸친 생성형 AI(발) 자동화로 마케터들의 역할이 스토리텔링, 데이터 분석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활용이나 여러 팀 간 협업으로 바뀔 것이라든 IDC의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AI의 기술 발전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양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봄철 나물로 건강을 잡자

긴 추위를 이겨낸 봄나물에는 다른 제철 음식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영양소들은 피로, 미세먼지, 빈혈, 다이어트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른해지는 봄에 봄나물을 제대로 알고 먹으며 건강을 지키자.

봄나물 종류	효능	잘 고르는 TIP
지방간에 좋은 '냉이' 	냉이의 별명은 '백세쟁(百歲羹)'이다. '100세까지 장수하게 하는 나물'이라는 뜻이다. 냉이는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칼륨, 엽산, 인, 철분, 단백질 등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냉이는 몸의 독소를 빼내는 해독작용을 해주고, 콜린 성분이 풍부해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는 춘곤증 같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은 동물과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다.	뿌리가 너무 굵고 질기지 않은 것을 택한다.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이고 잎과 줄기는 자그마한 것이 좋다. 향이 진한 것이 좋다.
빈혈·동맥경화 예방 '달래' 	달래는 영하 20도에서도 견딜 만큼 추위에 강한 식물이다. 그래서 먹었을 때, 사람의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촉진시켜준다. 또한, 달래의 특 쏘는 맛 속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빈혈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고 살균작용도 한다. 그리고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뿌리 쪽 잎이 너무 크면 향과 매운맛이 강하다. 중간 크기의 잎을 지닌 달래가 좋다. 뿌리가 많은 것보다 적당한 것이 좋고, 줄기에서 흰 부분이 짧고 초록 부분이 길면서 선명한 색을 띠는 것이 좋다.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입 후 일주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중년 여성에 좋은 '쑥'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대부분 자궁질환은 몸이 차서 발생하기 때문에, 월경통, 생리불순 등 부인병 치료에 쑥이 활용되기도 한다. 쑥을 먹으면, 수족냉증에 좋다. 특히,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운 증상인 '상열하한'인 사람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할 때 쑥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쑥은 지방 대사를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쑥은 줄기가 뻗어있지 않은 어린 쑥이 좋다. 이른 봄철 응달에서 자란 어리고 부드러운 잎이 향과 맛이 뛰어나다.
취나물 	취나물에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중년 여성에게 특히 좋은 이유다. 또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 함량이 많아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 외에도 비타민A, 비타민C, 엽산, 인, 칼슘 등도 풍부하다.	취나물은 부드럽고 연한 녹색을 띠는 것이 뻗뻗하지 않고, 향이 풍부하다.
다이어트에 좋은 '두릅' 	저열량 고영양의 봄나물인 두릅은 칼로리는 낮지만 다른 나물에 비교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스테미나 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효과적이다. 두릅의 쓴맛은 인삼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성분과 동일하다. 이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하며, 혈당과 혈중 지질을 낮춰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에도 좋다. 또한, 비타민A, 비타민C, 아연, 엽산,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어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높여준다.	두릅은 잎과 줄기가 싱싱하며 연하고, 싹이 짧고 뭉툭한 것이 맛있다. 너무 굵거나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껍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고, 향이 강한 것이 좋다. 두릅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꼭지 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촉촉한 신문지로 감싸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미세먼지에 좋은 '썩바귀' 	동의보감에서는 썩바귀를 쓴 나물이라는 뜻의 '고채(苦菜)'라고 부르며,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염증을 낮게 하고, 몸의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효능은 비염,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썩바귀가 구강건조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구강건조증은 노인과 당뇨 초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입안이 마르고, 심해지면 입 냄새 유발은 물론 음식을 씹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 외에도 썩바귀는 비타민A, 칼슘, 인, 철분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다. 특히 비타민A는 배추의 124배나 높다.	썩바귀는 잎이 싱싱하며 짙은 녹색인 것이 좋다. 뿌리째 먹는 나물이기 때문에 뿌리에 잔털이 없되 너무 굵지 않고 길게 뻗은 것이 좋다.



봄나물의 영양 성분

(나물 100g 기준)

	칼로리(Kcal)	단백질(g)	칼슘(mg)	비타민A(ug, R.E)	비타민B2(mg)	비타민C(mg)
냉이	31	4.7	145	189	0.32	74
달래	27	3.3	124	304	0.14	33
돌나물	11	1.3	212	120	0.06	26
두릅	21	3.7	15	67	0.25	15
쑥	68	5.3	230	563	0.32	33
썩바귀	39	2.9	74	305	0.31	7
원추리	35	2.7	19	89	0.08	39
참나물(야생)	33	3.5	102	963	0.32	15
취나물(금취)	37	2.9	241	780	0.50	28
취나물(잡치)	31	3.3	124	594	0.10	14

■봄나물 섭취방법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생채) 냉이, 달래, 돌나물, 썩바귀, 참나물, 취나물, 더덕 등

■데쳐서 먹어야 하는 것(숙채) 두릅, 고사리, 다래순, 원추리 등

■데친 후 건조한 것(묵나물) 취나물, 참나물, 고사리, 두릅, 쑥, 고비 등

■봄나물 채취시 주의사항

■봄나물에 대해 충분히 익히고, 필요한 양 만큼만 채취한다.

■산행 시에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채취하지 않는다.

■잎을 먹는 나물은 뿌리채 뽑지 말고 잎만 채취한다.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채취한다.

■임산 통제구역 및 채취 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한다. 임산물을 산립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챗GPT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인공지능이 우리 문화를 바꿔 놓는 혁명적인 시대이다. 챗GPT가 교회에서 실제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교회 안의 궁금한 부분을 이제는 AI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자.

교회로 들어온 인공지능

코로나로 3년간 위축됐던 종교계가 AI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팬데믹 3년을 겪으며 기술과학의 변화는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넘어 오랜 기간 익숙했던 교회 활동과 신앙양태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AI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초개인적 세대의 등장을 가속화시켜 신앙과 목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기반 활동이 중요한 신앙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주일예배 출석 교인 수는 20% 안팎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이탈률은 더욱 높다.

무엇보다 2030 젊은이들이 어떤 질문에든 답해주는 이른바 '주님 AI(인공지능)'에 빠져들고 있다. '주님 AI'는 기독교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권면의 말을 해주며, 기도문까지를 답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다. '주님 AI'는 마케팅 없이 배포 이후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편하게 묻기 어려운 그 어떤 질문에든 어느 정도 성경적이고 건전한 답을 내놓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주님 AI'가 목회자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주님AI'는 AI가 작성한 내용이 실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일부 교인의 항의에 따라 이름을 '초원'으로 바꿨다. '초원'애플리케이션(앱)은 월 활성 사용자가 3만~4만 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은 60%가 넘는다.

종교 생활에 기술을 적용하는 스타트업으로 음성합성 기술을 보유한 AI 오디오 기업 보이셀라는 모바일 성경 플랫폼 '바이블리'를 통해 여러 교회들과 협업하고 있다. 바이블리는 AI 기술로 실제 목사의 음성을 학습시켜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1시간 내외의 실제 음성 녹음 후 AI에 학습시키면 실제 목사와 비슷한 목소리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교회는 일정 비용을 내고 AI 성경을 제작한 후 바이블리 앱은 물론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국내 목회자 65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설교를 위해 챗GPT를 활용한 목회자는 20%에 달했다. 이 중 60%가 설교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챗GPT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AI의 활용, 어떻게 할까

Q: 아이돌 가수가 '광야'를 콘셉트로 쓰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나요?

A: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소비하는 엔터테인먼트 선택에 있어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도록 부름 받으십니다. 아티스트가 전달하는 가사, 상징, 주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과 일치하는 가치를 조정하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AI를 인간과 구분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AI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기실까요?

A: 하나님께서 동물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피조물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AI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 챗봇 앱 '초원'에서 오간 이용자들의 질문과 AI의 답변이다. 종교계에서는 AI 활용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종교인들이 설교문 작성에 챗GPT를 활용하기도 한다. AI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큰 책'에 가깝다. 우리가 이 도구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AI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AI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성'을 대체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결코 AI를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잠재력도 과시할 수는 없다.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세상을 격변하고 있다. 교회가 이를 제대로 선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먼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AI 사용설명서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이사장:김지철)과 아신대학교 교수진은 '교회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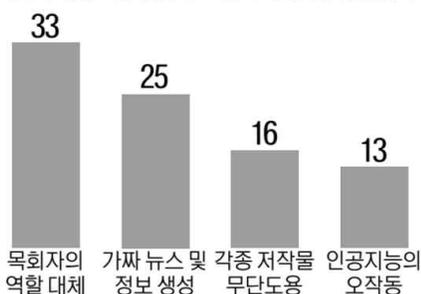
첫째는 '책임성'이다. 교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겠다는 것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과 신학 중심'이다. AI를 사용하며 성경의 기준과 신앙의 규범 아래 검증하고 보완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에서는 AI를 사용했음을 출처에서 명확히 밝힐 것, 넷째 '공공성'에서는 AI 사용을 통해 공교회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AI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특히 신앙, 교리, 성서 해석 관련 정보는 철저히 검증할 것, 설교나 교육에 AI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목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생성형 AI에 공개하지 않을 것, AI 활용의 사회적 경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공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공부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 AI가 제시한 정보가 성경과 교리에 대한 교회의 해석과 다른 경우 리터십과 논의할 것, AI를 상담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영적 고민과 정서적 문제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것, AI와의 대화가 성도의 교제, 공동체 경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할 것 등 AI 활용에 있어 주의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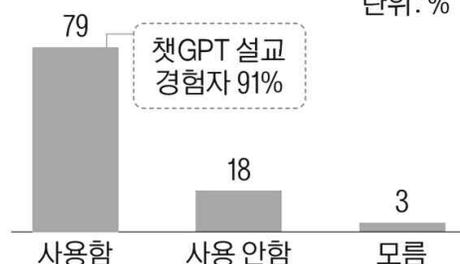
교회의 챗GPT 사용문제점

교회출석 개신교인 중 챗GPT 인지도, 상위4위, 단위: %



설교 준비시 챗GPT 사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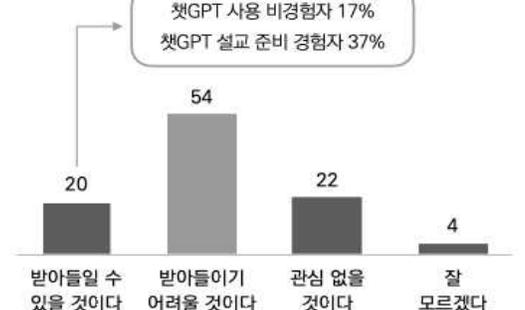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 미래목회말씀연구원

챗GPT 생성 설교문 사용에 대한 교인반응 예상

단위: %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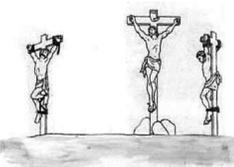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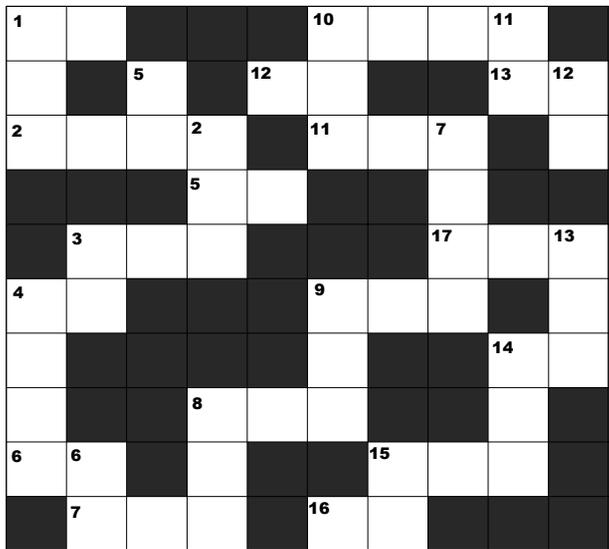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가로문제

1. 일 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날
2. 원래의 모양이나 상태로 돌아감
3. 일이나 줄의 순서를 어기고 남의 앞자리에 끼어드는 일
4. 바위가 깎아 세운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 있는 험한 낭떠러지
5. 딸의 남편
6. 외부의 자극에 미묘하게 움직이거나 감동하는 마음을 거문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7. 고무로 만들어 신축성이 좋은 줄
8. 주로 도로상에서 일정한 지점까지의 방향이나 거리 등을 적어 세워 놓은 표지
9.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 두 지역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지대
11.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 4월 5일.
12. 둥근 나무 따위를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 끝은 뾰족하게 원뿔 모양으로 깎고 중앙에 쇠로 심을 박아 만든 장난감
13. 책 첫머리에 그 속 내용의 제목을 차례대로 적은 조목
14. 인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15. 많은 남자 틈에 하나뿐인 여자를 이르는 말
16. 기쁜 기별이나 소식
17.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논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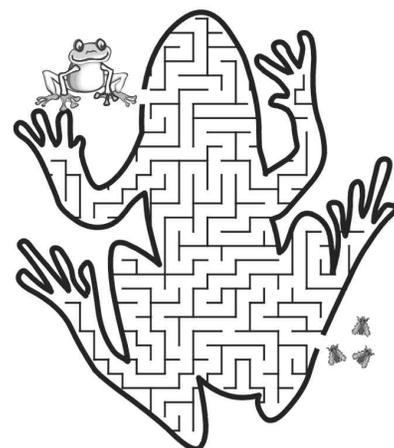
1. 어떤 사람을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
2. 그림이나 문서, 사진 따위를 복사하는 데 쓰는 기계
3. 날이 밝을 무렵
4.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한을 품음을 이르는 말
5.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
6. 돈, 귀중품, 중요 서류 따위를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쓰이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케나 창고
7.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8. 악보에서, 음높이가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표의 위나 아래에 굽는 반원형의 선
9. 실행이 없는 약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가구나 기계 따위의 일부를 접었다가 펼 수 있도록 만든 방식
11. 다른 시기에 비해 경기가 특별히 좋은 시기

12.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13. 시험을 치를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쓰도록 마련된 종이
14.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종일 영업을 하는 잡화 상점
15.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를 일반에 널리 알림

<지난 1/2월호 정답입니다>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신년축복성회 ■ 1월 1일~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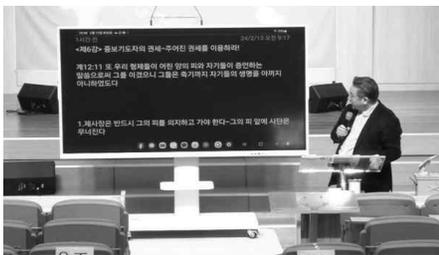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캄보디아 아웃리치
1월12일~18일
“오직 예수(One Way Jesus)”



예수 사랑학교
1월 27일
JESUS LOVE TOUCH



중보제자학교
중등부
아웃리치



차세대
수료예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제7차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월드와이드교회는 합동측 서울노회 소속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여배자 도끼를 소망합니다”

처음 캄보디아 광고를 보았을 때는 비용도 적지 않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여 학업적인 부담도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기간이 다가오면서 전도사님과 려은이의 설득,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았고 ‘내년에는 더욱 가기 힘들 것 같으니 기왕이면 이번에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웃리치를 신청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우 충동적이었던 것 같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또한 아웃리치는 세빈이도 가본 적이 없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열심히 설득하였고 그 결과 같이 갔다 오게 되어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둘 다 많이 받은 것 같아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 4일간의 새벽예배는 새벽 기상이 익숙하지 않고 예배가 끝난 후 2시간씩 워십과 스킵 드라마를 연습하면서 피로도가 싸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캄보디아 가기 전에만 새벽에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았는

데 가서도 일주일 동안 새벽 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괜히 신청했나’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조금 자더라도 피로를 충분히 풀어주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둔 것과 교회의 규모가 매우 작은 점, 심지어 선풍기조차 없어 땀으로 젖어가면서 예배를 하는 모습들이 한국의 교회와 비교되어 지금까지 얼마나 편하게 예배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지금의 교회조차 불편하다고 투덜거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또래의 한국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과 주변의 환경들이 정돈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교회로 나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선생님을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이 작은 아이들도 아침 8시 예배에 나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더 늦은 시간인 9시 예배에서 피곤하다고 졸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지흠 선교사님과 함께한 기도회에서 선교사님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선교를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학교에 가는 행동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한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 저의 지난 예배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뵈기를 원한다고 나와 만나 달라고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 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캄보디아로 오기



고등부 최하늘

까지의 어려움과 속마음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서로의 느낌을 들으면서 까먹고 있던 은혜를 되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전도사님과 옆자리에 앉아 나는 이야기를 통해 일주일간의 선교가 다시 한번 정리되었고, 전도사님께서 저를 통해 이번 아웃리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였고 이번 아웃리치에 참가하기로 한 일이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인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지체와 함께 가길 기도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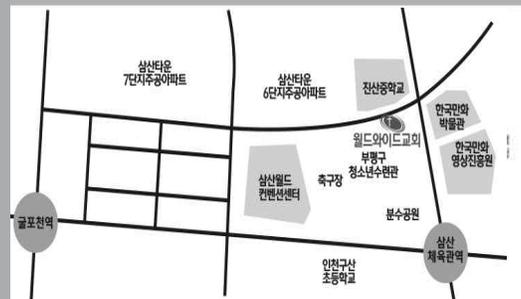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v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주일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vch.or.kr

월드와이드 문화아카데미

33기 월드와이드 문화아카데미 강좌

대상 : 지역교회성도 및 지역민 누구나
 강좌일정 : 2024년 4월 3일(수) ~ 5월 4일(토)
 접수기간 : 2024년 2월 13일(화) ~ 3월 29일 (금)
 접수 : 월드와이드교회 032-501-9686~7 (체육관로 82)

강 의 명	강 사	강사 소개	일 정	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정원
말씀 캘리그래피	박선미 민주현	청헌재이그라피 문화사역 보성경필사 묵상집 필사 전문강사	4월3일~ 5월 2일 (5주 강좌)	목요일 오전11시~1시	2층 영아부실	2만원	교재비 or 재료비 별도
반려동물 아로마 외 아로마테라피	김수진	천연화장품 아로마테라피2급 전문강사 반려동물 아로마 전문강사	4월3일~ 5월1일 (5주강좌)	수요일 오전10시-12시	2층 영아부실	1만원	
베리굿 정리수납	김문숙	수납전문가 1,2급전문강사 정리프로세스 정리수납컨설팅 제공	4월4일~ 5월2일 (5주강좌)	목요일 오전10시-12시	3층 유년부	1만원	
카페 바리스타 입문	최경순	월드와이드스테이션 카페바리스타	4월6일~ 5월4일 (5주 강좌)	토요일 오전10시30분 ~12시	1층 카페	1만원	

- 수업의 집중을 위해 최소 실비를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지원합니다
- 담당자: 동선화전도사(010-9908-4138)
- 월드와이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서울노회소속의 건전한 교회입니다

